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시계: 애틀모스 클락의 놀라운 이야기

1928년 처음 공개된 이후 애틀모스 클락은 마법과 같은 작동 방식과 메커니즘의 미학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매혹적인 오브제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작동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장치를 꿈꿔 왔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의 원칙에 따르자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 누구도 동력 없이 무한히 움직이는 장치를 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거 르쿨트르는 지금까지 제작된 메커니즘과 비교했을 때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기계에 가장 가까운 애틀모스 클락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시계

1928년, 뇌샤텔 출신의 방사선 엔지니어 휘테는 현재 애틀모스 0으로 알려진 프로토타입의 클락을 공개합니다. 클락은 마모되거나 외부 개입 없이 그리고 배터리, 전력 또는 태엽 감기 없이 수 세기 동안 작동하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틀모스는 일상적인 온도 변화를 통해 시계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간단한 기계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밸런스에 동력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멤브레인을 통해 시계를 구동하는 스프링에 연결된, 가스를 채운 밀폐형 캡슐에 있습니다. 주변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가스가 팽창하면서 아코디언의 바람통처럼 멤브레인이 팽창 및 수축하면서 '숨을 쉬는듯' 스프링이 와인딩됩니다. 섭씨 1도의 변화만으로도 48시간 동안 충분히 클락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량의 에너지만을 생산하는 놀라운 시스템의 특성상, 무브먼트는 최대한 적은 양의 에너지만을 소비하도록 설계됩니다. 15와트 백열 전구 한 개에 불을 켤 수 있는 것과 같은 양의 에너지만으로도 애틀모스 클락 6천만 개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변형추를 사용하여 시간을 유지하며, 니켈 기반 합금인 얇은 엘린바 와이어에 메탈로 만든 밸런스가 매달려 있습니다. 고리 모양 밸런스는 1번 진동하기까지 1분이 소요되므로 일반적인 손목시계에 요구되는 에너지의 1/4에 불과한 에너지만으로도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프로토타입에서 하나의 예술품이 되기까지

휘테가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지 2년만인 1930년, 첫 번째 애틀모스 I 클락이 판매되었지만 기술적 문제로 인해 상품 판매 및 생산은 빠르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크-다비드 르쿨트르가 파리 부티크에서 우연히 애틀모스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애틀모스의 고유한 작동 방식에 매료되어 클락을 구매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메커니즘을 실제로 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지만, 휘테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으며 탁월한 위치메이킹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매뉴팩처의 연락을 받은 휘테는 즉시 자크-다비드 르쿨트르가 이끌고 있는 르 상티에로 달려와 "뉴 애틀모스(new Atmos)"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의 애틀모스 I 을 판매하는 한편, 메커니즘을 향상하고 생산을 상용화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무브먼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밀성(air-tightness)을 향상하고 휘테가 사용했던 수은을 안정적인 염화에틸로 대체하는 한편 메커니즘의 핵심 부품을 전면 재해석해 연속 생산에 적합한 심플하고 강력한 부품을 제작하는 등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939년, 예거 르쿨트르는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한 새로운 칼리버 519를 개발하고 애틀모스 II를 상용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애틀모스는 즉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 하는 오브제로 거듭났고, 1950년에는 스위스 연방의 공식 선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51년에 이르러 애틀모스의



연간 생산량은 10,000 피스에 도달했으며, 1979년에는 50만 번째 클락이 르 상티에 매뉴팩처를 떠났습니다.

에트모스 메커니즘은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극소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추가 기능을 작동할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982년, 매우 경미한 에너지만으로도 추가 기능을 작동하게 만드는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무브먼트, 칼리버 540이 개발되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들은 1990년 말 최초의 문페이스 에트모스를 개발한 이후 천체도, 레귤레이터 다이얼, 균시차 디스플레이에 이어 *레몽투아 드갈리떼(remontoir d'égaleité)*를 탑재한 '미스터리 클락'과 컨스탄트 포스 메커니즘(constant-force mechanism)까지 각종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디자인의 혁신

에트모스는 탁월한 기술이 집약된 타임피스이자 하나의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돛형 글래스' 캐비닛 형태의 오리지널 에트모스 I은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로 제작되어 지금까지도 수집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시간을 초월한 아르데코 라인과 직선형 디자인이 완벽히 균형을 이룬 에트모스 II 캐비닛은 클래식한 '글래스 박스' 형태를 선보입니다. 에트모스는 지난 수십 년간 혁신을 거쳐 기능과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강렬한 미학적 아이덴티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에트모스의 캐비닛은 창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적인 재해석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1970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 및 숙련된 장인들과 공동으로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에트모스 클락 등 다양한 에트모스 스페셜 에디션을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988년 파리 출신의 디자인 에이전시인 Kohler & Rekow의 독창적인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21세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에트모스 밀레니어 아틀란티스(Atmos du Millénaire Atlantis, 1999년), 수작업으로 만든 바카라 크리스탈 내부에서 무게감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메커니즘에 둘러싸인 에트모스 566 바이 마크 뉴슨을 비롯해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키스(The Kiss)'를 상감 세공으로 섬세하고 우아하게 재현한 진귀한 목재 소재의 캐비닛에 둘러싸인 에트모스 마케트리 '키스'(Atmos Marqueterie 'Le Baiser', 2012년)를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고급 손목시계를 제작하기 위해 예술적 상상력과 높은 수준의 장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에트모스에도 목재 상감 세공, 에나멜,



젬세팅 및 다양한 크리스탈 제작 기법과 같이 수 세기에 걸쳐 계승되어온 장식 예술이 고스란히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애틀모스 무브먼트는 매뉴팩처에서 그리고 전문화된 애틀모스 아틀리에에서 수작업으로 구상, 개발 및 제작됩니다. 애틀모스 클락 한 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애틀모스 메커니즘을 테스트한 뒤 조정하는 5 주간의 공정 외에도 8 개월 ~ 10 개월이 소요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 역량, 유서 깊은 전통에 조용히 움직이는 밸런스 휠과 신비로운 작동 방식까지, 애틀모스 클락은 탄생한 지 90 여 년이 지났지만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시계라는 고유한 위상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 년, 예거 르쿨트르는 마스터의 경지에 이른 장인들을 소개하는 15 번의 전시회를 통해 유럽의 탁월한 장인 정신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이벤트인 호모 파베르에서 애틀모스를 다시 한번 기념합니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의 탁월한 노하우로 선정된 예거 르쿨트르는 장식 계보(Genealogies of Ornament) 전시회 등장하는 그랑 메종으로, 워치메이킹과 장식 예술 이면에 숨어 있는 정교한 공예 기술력과 전문 지식에 대한 놀라운 경의를 표합니다. 타임피스이자 하나의 예술품이기도 한 애틀모스는 세계 각지에서 스위스의 탁월한 장인 정신과 천재성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HOMO FABER)는 산 조르조 마조레(S.Giorgio Maggiore) 섬에서 4 월 10 일부터 5 월 1 일까지 개최됩니다.

애틀모스 소개

1928 년에 탄생한 애틀모스는 다른 시계와는 차원이 클락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태엽 감기 없이 수 세기 동안 작동하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발명품으로, 애틀모스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인 기온 변동에 의해 구동됩니다. 섭씨 1 도의 변화만으로도 이를 동안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1930 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독창적인 재능을 활용해왔으며, 마침내 애틀모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애틀모스 II 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글래스 큐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클래식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는 유명 디자이너 및 장인과 협력하여 애틀모스 스페셜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